

HANARO

ETF
Monthly

August. 2025

Contents

01. **HANARO Insight**

바야흐로 K-뷰티의 전성기

02. **8월 추천상품**

HANARO K-뷰티

03. **8월 신상품**

HANARO 유럽방산

04. **HANARO ETF 수익률 TOP5**

05. **HANARO ETF League Table**

바야흐로 K-뷰티의 전성기

K-뷰티 전성기 진입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2025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제품 혁신과 SNS마케팅, 인디 브랜드의 약진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미용의료 산업과의 시너지로 더마코스메틱과 첨단 뷰티솔루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K-뷰티의 카테고리가 한 층 더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뷰티의 성공에는 **제품 혁신과 품질, K-컬처의 매력과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의 조합에 기반하며**, 이는 K-뷰티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바야흐로 K-뷰티의 전성기'** 라는 표현은 올해 상반기 실적 데이터를 통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K-뷰티의 긍정적인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HANARO insight 에서는 상반기 K-뷰티의 성공과 더불어 하반기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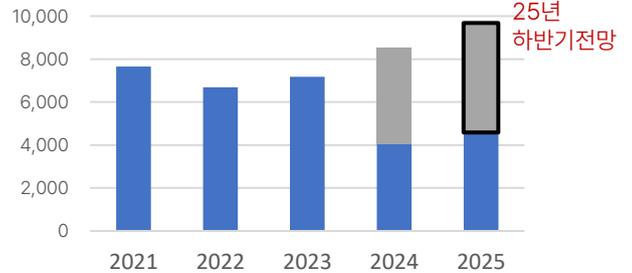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월별 화장품 수출액 추이 (백만달러)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아문디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백만달러)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아문디

2025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억 달러 증가한 4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6.4조원(환율 1,387원 적용)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의 성과를 넘어 연간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K뷰티 수출 성장은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중소 인디브랜드의 약진이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큐브, 달바, 조선미녀 등 중소 K-뷰티 브랜드가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피알의 '메디큐브'는 올해 상반기 일본의 쿠팡에서 압도적인 매출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8일~11일)에서도 뷰티 부문 전체 1위를 차지하며 단숨에 K뷰티의 선두 주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에이피알은 올해에만 주가가 232.6% 급등하며 시가총액 6조원을 돌파하는 등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 뷰티&퍼스널케어 부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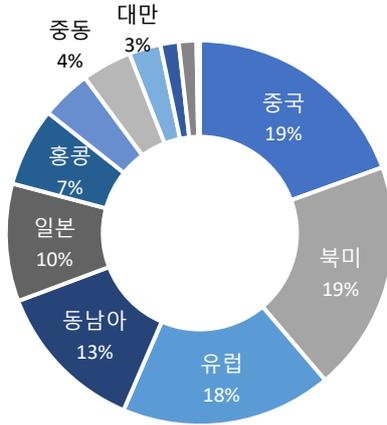
출처 : 아마존, 언론 보도

바야흐로 K-뷰티의 전성기

미국, 유럽
중동지역
수출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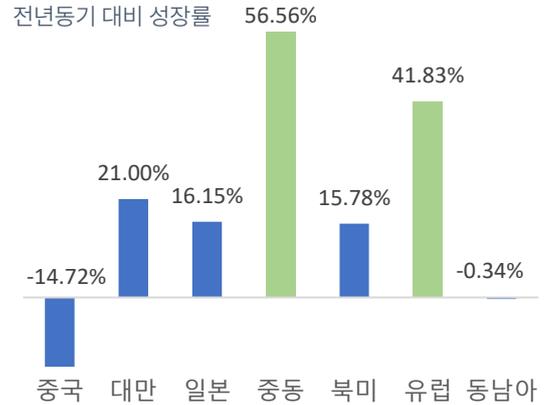
상반기 K-뷰티 수출의 특징은 전통적인 시장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은 여전히 19.4%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4년 25.2%에서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이 두드러집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국가 비중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아문디

상반기 화장품 수출금액 국가별 성장률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아문디

이러한 시장 다변화는 K-뷰티산업의 전략적 위험 분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중국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같이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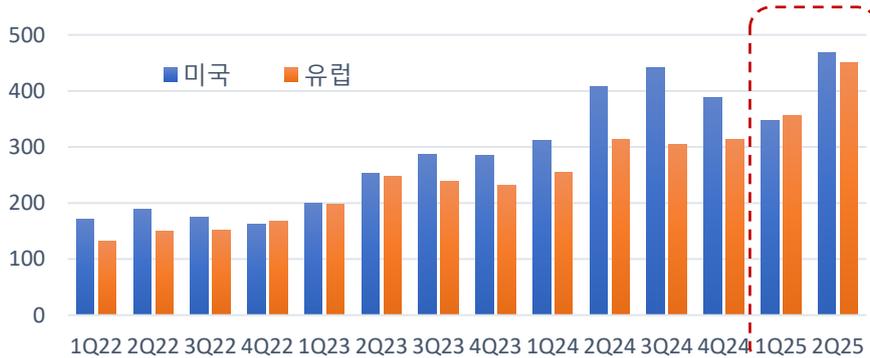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 다변화가 K-뷰티의 매력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미 2024년에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화장품 수입국가로 등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업계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유럽 시장
성장세 주목

국가별 수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향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유럽향 화장품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년대비 41.8%나 증가하여, 한국 화장품의 메인 수출 시장으로 급 부상하였습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미국에 비해 약 30%이상 뒤쳐져 있던 상태에서 올해는 미국에 필적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K-뷰티가 중국 및 아시아에서 시작해 미국, 유럽, 중동 등 지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은 K-뷰티가 글로벌 시장 침투를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올해 하반기 유럽지역의 성장세가 얼마나 확대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화장품 분기별 미국, 유럽 수출금액 추이



2025년 상반기 유럽향 수출 급성장 미국과 대등한 수출시장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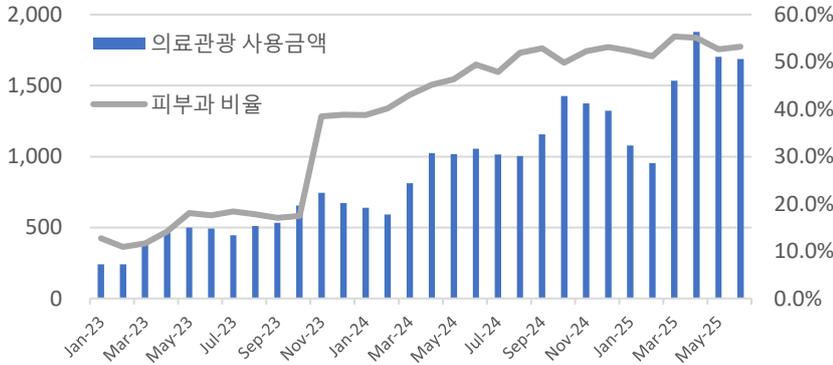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아문디

바야흐로 K-뷰티의 전성기

급성장중인 미용의료 산업

한편 K-뷰티의 또다른 성장 동력은 미용의료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의료소비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피부과 소비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외국인 의료소비액



출처 : 한국의료관광데이터랩(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의료소비액은 24년 5월 최초 1천억원을 돌파한 후 지속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1,500억을 상회하였고, 4월에는 1,877억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소비액중 피부과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은 외국인 피부과 지출금액이 월간 1천억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피부과의 스킨케어, 미용시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피부미용 의료관광 시장은 연 1조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SNS를 통한 한국 미용트렌드 및 K-컬처 콘텐츠의 확산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확대 요인입니다. 또한 한국의 미용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진의 높은 숙련도, 피부 및 성형의 첨단 인프라, 대도시 중심의 병원 밀집으로 인한 시술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신증권 25.03). K-뷰티는 이미 세계적인 피부미용 맛집이 된 셈입니다.

미용의료 시장 성장은 보톡스, 필러, 스킨부스터 등 의료기기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기업인 파마리서치는 PDRN성분 주사제인 리쥬란의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34%의 매출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성장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신, 필러 등 에스테틱 기업인 휴젤은 국내와 해외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휴젤 제품 포트폴리오

Botulinum Toxin
(55% revenue contribution in 3Q LTM 2024)

Botulax, Letybo

- Offered in 50U/100U/150U/200U/300U to cater to different volume needs by application area

Filler & Skin Booster
(34% revenue contribution in 3Q LTM 2024)

The Chaeum, Dermalax, Persnica, BYRYZN

- Comprehensive line-ups covering various consumer needs from volumizing to skin boosting

Absorbable Thread
(2% revenue contribution in 3Q LTM 2024)

Blue Rose Forte, Blue Rose Clair

- Medical absorbable thread used for lifting and lightening facial skin

Cosmeceutical
(9% revenue contribution in 3Q LTM 2024)

Wellage, BYRYZN BR

- Highly functional cosmetics using pure and concentrated ingredients with key focus on hydrating, firming, and whitening lines

출처 : 휴젤 회사소개자료

바야흐로 K-뷰티의 전성기

화장품 미용의료 시너지 기대

화장품과 미용의료 산업간의 시너지는 장기적으로 K-뷰티의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브랜드 파워를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 관광은 K-뷰티의 효과적인 글로벌 마케팅 채널 역할로서, 미용 시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한국의 첨단 클리닉, 시술 전후 관리를 위한 고품질 스킨케어 제품에 노출됩니다. 한국 시술의 우수성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자국의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한 의료 관광객이 글로벌 K-뷰티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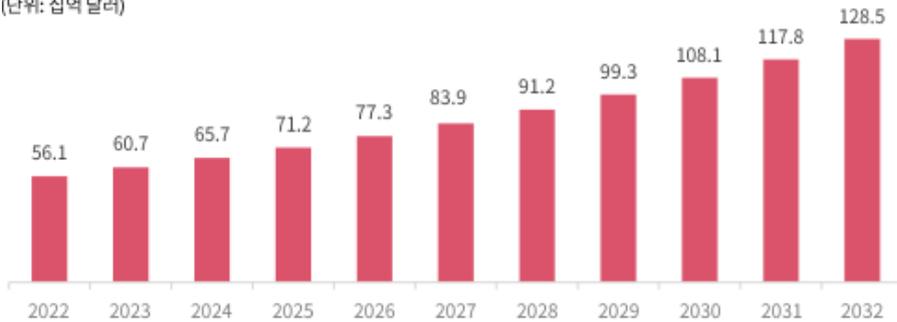
여기에 더해 현재 스킨부스터, 선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K-뷰티가 더마 코스메틱(Dermacosmetic),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고 불리는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더마코스메틱: 피부과학(Dermatology)'과 화장품(Cosmetics)의 합성어로 과학, 의약적 기반에 의해 개발된 기능성 화장품

* 코스메슈티컬: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 더마코스메틱과 유사한 의미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 : 삼일PWC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더마코스메틱에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사업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더마뷰티 브랜드 '에스트라'를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올해 초 미국 세포라 400개 매장에 입점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2014년 인수한 CNP브랜드로 북미, 일본 등에 진출했습니다. 에이피알의 메디큐브는 PDRN성분, 민감피부, 주름 개선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의 중심에 있는 K-뷰티가 더마코스메틱을 발판으로 추가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제품 에스트라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PDRN성분을 포함한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리뷰 3,030 PDRN 핑크 미백 광채 스페셜 세트 PDRN 콜라겐 켈 메드 X PDRN 캡슐크림

리뷰 2 PDRN 핑크 카메인 랩핑 마스크 자는 동안 붓기 빼고 탄력제우는 페이스라인 케어

HANARO K-뷰티 - 국내 화장품 및 미용의료 관련 기업에 투자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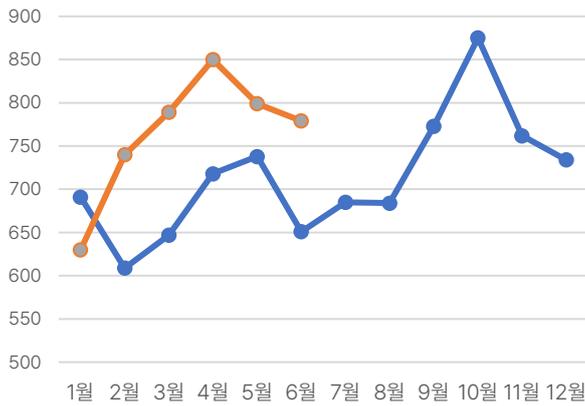
아시아, 미국, 유럽, 중동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확장 가속화

화장품에서 미용의료로 확산되는 K-뷰티 열풍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 피부미용, 필러, 보톡스 관련 20종목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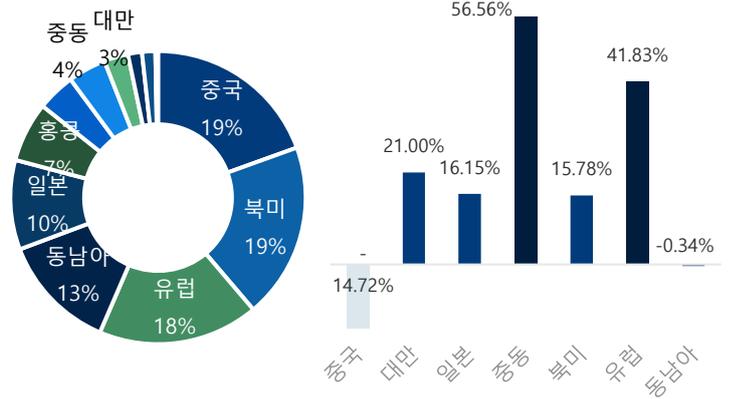
수출지역 다변화, 해외 진출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는 K-뷰티

월별 화장품 수출액추이 (백만달러)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 Amundi 자산운용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국가 비중



출처 : TRASS, 삼성증권, NH Amundi 자산운용

편입종목 및 상품개요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에이피알	15.9
2	아모레퍼시픽	13.8
3	파마리서치	13.5
4	LG생활건강	10.9
5	코스맥스	6.9
6	휴젤	6.1
7	달바글로벌	6.0
8	실리콘투	5.9
9	한국콜마	4.5
10	메디톡스	2.8

기준일 25.07.29, 신한아이타스

종목명	HANARO K-뷰티			
종목코드	479850			
상장일	2024.04.16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기초지수	FnGuide K-뷰티 지수			
설정단위	1CU 당 50,000좌			
수탁/사무	HSBC, 한국펀드파트너스			
총보수	운용	지정참가	수탁	사무
0.45%	0.40%	0.01%	0.02%	0.02%

HANARO 유럽방산 – 유럽의 재무장, 방위산업 지출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방산기업

투자포인트

- 유럽지역의 안보위기 고조에 따른 유럽 방위전략의 전환
- 유럽의 재무장, 국방투자 확대로 구조적 성장 모멘텀 확보
- 유럽 방산 유망기업 전반에 투자 가능한 대표기업 포트폴리오

왜 지금 유럽방산인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유럽의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무장을 단행 중이며, 그 중심에는 유럽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왜 지금 유럽 방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럽 방산이 어떠한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방산 투자 가이드북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방산 투자 가이드북 바로가기](#)



편입종목 및 상품개요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AIRBUS	10.6
2	ROLLS ROYCE	10.6
3	SAFRAN	10.4
4	RHEINMETALL	9.4
5	BAE SYSTEMS	9.2
6	MTU AERO ENGINES	9.0
7	THALES	9.0
8	LEONARDO	8.7
9	SAAB B	7.1
10	BABCOCK INTERNATIONAL	2.7

기준일 25.07.29, 신한아이타스

종목명	HANARO 유럽방산				
종목코드	0082F0				
상장일	2025.07.29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기초지수	STOXX Europe Total Market Defense Capped Index				
설정단위	1CU 당 50,000좌				
수탁/사무	국민은행, 한국펀드파트너스				
총보수	운용	지정참가	수탁	사무	
0.35%	0.30%	0.01%	0.02%	0.02%	

기준일: 2025. 07. 29

ETF명	투자포인트
<p>HANARO 원자력iSelect</p> <p>3M 수익률 + 77.0%</p>	<p>종목코드: 434730 규모: 3,552억 상장일: 2022-06-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원전 수요 확대 • 저탄소 에너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 체코 원전 수주로 입증된 원전 팀 코리아의 경쟁력
<p>HANARO 전력설비투자</p> <p>3M 수익률 + 62.4%</p>	<p>종목코드: 491820 규모: 282억 상장일: 2024.09.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발달과 데이터센터에 의한 전력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인프라 노후화로 전력설비투자 수퍼사이클 • 국내 변압기 3사와 전선 등, 전력설비 투자 포트폴리오
<p>HANARO CAPEX설비투자</p> <p>3M 수익률 + 59.7%</p>	<p>종목코드: 454320 규모: 618억 상장일: 2023-04-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 확대 추세 • CAPEX 설비투자 확대 섹터 집중 투자 • 5개 세부테마(전력&건축설비, 공장기계, 풍력, 원자력)
<p>HANARO 글로벌반도체 TOP10</p> <p>3M 수익률 + 32.5%</p>	<p>종목코드: 464060 규모: 68억 상장일: 2023-08-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의 발전으로 장기적 성장이 지속되는 반도체 산업 • NVIDIA, TSMC, 브로드컴 등 글로벌 대표기업에 투자 • 글로벌 반도체 TOP10 압축투자 솔루션
<p>HANARO 주주가치성장코리아 액티브</p> <p>3M 수익률 + 30.75%</p>	<p>종목코드: 482870 규모: 109억 상장일: 2024-06-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친화적 제도개선으로 리레이팅 진행되는 한국증시 • 주주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에 투자 • 리서치 기반의 액티브 투자전략으로 초과성과 추구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HANARO ETF League Table

기준일: 2025. 07. 29

구분	ETF 명칭	순자산총액 (억원)	성과			
			1M	3M	6M	1Y
시장 대표	HANARO 200	3,858	5.60%	28.84%	31.29%	17.70%
	HANARO KRX300	80	5.76%	27.51%	29.18%	16.08%
	HANARO 코스닥150	162	6.56%	13.59%	9.75%	0.78%
	HANARO 200TR	1,136	5.62%	28.78%	31.20%	17.63%
	HANARO MSCI Korea TR	436	6.44%	27.59%	28.18%	12.07%
	HANARO 200 TOP10	138	7.29%	19.93%	15.08%	8.73%
	HANARO 미국S&P500	116	6.61%	12.04%	1.65%	18.32%
채권	HANARO KAP초장기국고채	44	-0.07%	-3.06%	0.98%	4.68%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385	-0.02%	-1.18%	1.70%	4.86%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4	0.21%	-0.58%	1.56%	4.51%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766	0.23%	0.74%	1.57%	3.45%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1,128	0.21%	0.68%	1.51%	2.76%
	HANARO KOFR금리액티브(합성)	119	0.22%	0.66%	1.42%	3.09%
테마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58	10.16%	15.04%	20.08%	8.77%
	HANARO e커머스	542	-5.82%	17.90%	31.54%	23.87%
	HANARO 고배당	198	4.36%	25.22%	32.03%	36.29%
	HANARO 글로벌렉셔리S&P(합성)	181	10.63%	10.94%	0.47%	12.99%
	HANARO Fn5G산업	80	2.17%	20.60%	13.10%	6.97%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368	10.03%	15.82%	9.42%	5.41%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95	5.88%	26.65%	29.49%	14.63%
	HANARO Fn전기&수소차	170	11.53%	21.24%	12.57%	0.04%
	HANARO Fn친환경에너지	79	13.59%	22.89%	22.94%	6.86%
	HANARO Fn K-반도체	2,539	1.69%	27.26%	14.87%	-0.91%
	HANARO Fn K-게임	126	-3.44%	8.65%	8.66%	1.00%
	HANARO Fn K-POP&미디어	635	-11.03%	4.01%	19.88%	37.65%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55	3.14%	5.09%	2.05%	1.24%
	HANARO Fn K-메타버스MZ	56	-2.55%	9.61%	11.24%	4.87%
	HANARO 글로벌위터MSCI(합성)	90	3.16%	4.78%	10.00%	10.94%
	HANARO 원자력iSelect	3,552	3.43%	77.09%	76.32%	110.12%
	HANARO Fn K-푸드	205	1.63%	5.27%	25.17%	10.71%
	HANARO Fn조선해운	991	9.81%	24.95%	51.71%	88.46%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618	7.88%	59.77%	53.69%	80.43%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343	9.17%	30.75%	8.77%	63.98%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	69	7.70%	32.59%	6.16%	24.41%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104	2.65%	3.42%	35.58%	46.27%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50	-3.35%	5.72%	-11.70%	-30.13%
	HANARO K-뷰티	454	4.04%	25.68%	52.67%	27.26%
	HANARO 주주가치성장코리아액티브	109	5.80%	30.75%	30.52%	25.61%
	HANARO 전력설비투자	282	12.04%	62.42%	37.68%	84.58%
	HANARO 코리아밸류업	277	4.06%	27.85%	28.68%	33.66%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	99	10.98%	12.32%	15.84%	25.82%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235	8.45%	19.34%	34.24%	-
	HANARO 유럽방산	68	-2.55%	-	-	-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Tracking Error)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원화 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 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 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외국 통화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 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 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의 수익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SNS에서 ETF추천 영상, 추천 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NH-Amundi자산운용에서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 및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778호(2025.07.31~2026.07.30)